

## 그리스도인 35.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지역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

### Christian 25. How can a Christian be a member of the local church?

1. 그리스도께서 머리(head)라면 지역교회는 몸(body)이고, 그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가지 지체들(members)이다. 손, 발, 눈, 귀, 코, 입은 모두 몸의 지체들이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지역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바울은 지역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고전 12:27)

2. 지체들은 몸 안에서 한 생명을 나눈다. 지체들은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한 지체의 영광은 몸의 영광이 된다. 한 지체의 범죄는 몸의 범죄가 된다. 한 지체의 위기는 몸의 위기가 된다. 지체는 몸과 함께 한다는 말이다.

어느 쪽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고, 혹은 한 지체가 존귀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sup>27</sup>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고전 12:26-27)

3. 지체들의 모습은 모두 같지 않다. 그들이 받은 은사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을 위해 수고한다.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체들로서 하나의 지역교회를 위해 수고한다.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함께 협력한다.

이와 같이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이 있은즉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 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고전 14:12)

4. 성경대로 믿는 침례 성도들은 하나의 지역교회를 세우기 위해 강한 지체의식(membership)으로 함께 한다. 강한 지체 의식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첫째, 서로 함께 한다.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이다. 자주 얼굴을 보려고 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참여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 둘째, **서로를 존중하며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라.(엡 5:21)

지체들은 함께 모여 교회가 하는 다양한 일들에 협력한다. 경배는 물론, 성경공부, 선교, 복음 전도, 그리고 친교 등, 주님의 일에 공동으로 힘쓰며 서로를 격려한다.

- 셋째,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서로의 건강, 안전, 영적 성장,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기도한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약 5:16)고 했다.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힘쓸 것이다.

5. 그러면 누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지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이다.

- 첫째,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행 20:21)하였다. 교회의 지체가 되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한다.

- 둘째,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로서 물 침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침례에 대한 순종은, 그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 대해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며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보여준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그들에게 약 삼천 혼들이 더하여지더라.'(행 2:41)라는 말씀처럼 초기 교회에서 교회에 더해지는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에 순종함으로 가능했다.

• 셋째, 자기가 속하고자 하는 **교회의 믿음에 일치된 사람**이어야 한다. 아모스서 3장 3절은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암 3:3)라고 말하고 있다.

신장을 이식하려고 해도 그 신장이 이식될 몸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으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체가 하나의 지역교회에 더해지려 할 때 그 지체와 그가 더해지려는 교회의 믿음, 실행이 맞아야 한다. 만일 그 개인이 가진 믿음이 그 지역교회와 다를 때는 그 지역 교회의 믿음에 따르고자 해서 더해질 수 있다. 이제 막 구원받아서 교리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사람,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르기로 해서 그 교회에 더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자신이 가진 믿음을 바꿀 수 없다면 굳이 그 믿음이 다른 지역교회에 더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믿음과 맞는 교회를 찾아 더해지면 된다. 그렇지 않고 괜히 그 지역교회에 더해져서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롬 16:17)라고 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마 18:17)고 했다. 교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실행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지체는 자기가 더해지고자 하는 교회와 동일한 믿음이어야 한다.

6.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모시고 믿음의 고백으로서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해서, 하나의 지역교회에 더해질 수가 있다. 특별한 그가 속하려는 교회와 동일한 믿음과 실행을 지켜가기로 해서 그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